

중화민족론의 성격과 전개과정

이 천 석

영남대학교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IV. 나오는 말 |
| II. '중화민족' 개념 형성 | 참고문헌 |
| III. 중화민족론의 논의와 전개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정체성(Identity), 중화민족(Zhonghua minzu), 동북공정(Dongbei-Gongcheng), 소수민족(Minority Race), 민족주의(Nationalism)

국 문 요 약

중화민족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서양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중국인의 '천하관(天下觀)'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세계는 더 이상 중국만의 천하가 아니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서구의 모델인 국민국가의 탄생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민족주의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1980년대 이후 탈냉전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은 분열이라는 위기감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관 및 민족관의 재조정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한족을 대신하여 중화민족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점이다. 둘째로 향후 발생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었다. 그 중 우리에게 문제가 된 것은 동북공정에서 보여준 한중간의 역사 갈등이었다. 이 지역의 고대 역사문제는 민족문제와 관련성이 많다. 중국내 많은 소수민족이 한족과 융화 내지 갈등소지를 함께 지니고 있다. 중국은 이들 소수민족을 통합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라는 정체성 속에 살고 있다. 본 연구는 중화민족과 신중화주의의 관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중국의 대내외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화민족이 가진 특성 및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화민족이 생성된 이유와 전개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중화민족이 지닌 성격을 잘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 활용 가치가 있다.

I. 들어가며

중화민족 개념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민족 담론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민족’(nation)은 언제, 왜, 시대의 핵심적 화두로 부상하였는가? 그것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의 프라이드가 붕괴되었던 19세기 중반 이후였다. 즉, 문명적 보편으로서의 ‘中華’가 붕괴되자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재정립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야기되었던 것이다.¹⁾ 그것은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이자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였다.

서양 제국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인의 ‘天下觀’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 세계는 더 이상 중국만의 천하가 아니었다. 천하 밖에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서양의 등장에 의한 천하관의 부정은 중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천하관 내지 중화사상에서 탈피하여 자기정체성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탄생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민족주의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족주의는 위기극복의 주체로서의 국민국가 논의를 공식화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오늘날에도 한족을 대신하여 중화민족을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통합에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차후 발생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동북공정, 백두산공정 등과 같이 고대역사의 재편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민족관의 새로운 정립이 그것이다.

이 글은 그동안 한국에서 한족과 중화민족의 정체성의 연구에 소홀히 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중화민족론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민족주의는 민족관의 정립과 민족정체성의 재조명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중화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은 중화민족을 시의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급적 작용을 하여 국내 문제에 치중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 작용을 하여 강력한 힘의 투사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화민족론의 대두는 혼돈된 중국의 내부문제 결속과 대외적으로 결집된 힘의 투사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중간, 중일간 분쟁 문제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르기 까지 분쟁지역과 국제관계를 조망하는데 중화민족론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화민족의 용어의 기원과 중화민족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살

1) 루원(魯迅)의 「阿Q正傳」은 이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의 눈에 비친 초라하고 비참한 중국인의 자아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5.4운동과 같은 신문화운동은 중국인 근대적 자아정체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신운동이었다. 그러나 쑨웨이밍의 지적처럼 현대의 중국 역시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최종적 대답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이 좁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원인이다.

펴보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청말 서구제국주의 침탈 위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로 한정하며, 중화민족 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II. ‘중화민족’ 개념 형성

오늘날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양날을 가진 칼이 되었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가 對外的으로는 중국인의 국가적 단결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對內的으로는 중국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정당화하는 논리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 「民族」 앞에 “중화”라는 형용사를 더 하는 것이다. 즉, “중화”속에서 중국 내 소수민족은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탄생되었을 때, 그 개념은 원래 반대의 의미였다. 즉, 만주족인 淸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이민족과 한족을 분리하는 개념이었다.

민족이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반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의 긍지와 각성을 의미하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도 이때 출현했다. 이는 근대적인 용어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수입한 민족 개념은 중국에 들어와 민족 단독어도 쓰였지만 20세기 초에는 주로 중화민족, 중국민족으로 쓰였다. 이 용어는 신해혁명기까지 한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다. 따라서 중화민족이란 20세기 초 ‘중화’와 ‘민족’이 결합되어 생성된 용어이다.

‘중화’는 지명으로 쓰일 경우 변강지구와 대비되는 郡縣지구를 의미하며, 통일 시기에는 전국을 지칭하였고 분열시기에는 중원을 지칭하였다. ‘중화’가 민족 호칭로 쓰일 경우에는 한족을 지칭하였다. 예로, 명태조 주원장은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쑨원은 1894년 11월 24일 ‘興中會’와 1905년 동경의 ‘中國同盟會’ 결성시, “오랑캐를 축출하고 중화를 회복하며, 민국을 건립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때의 중화는 한족만을 의미한 말이다. 여전히 ‘중화’와 ‘오랑캐’를 대립적 존재로 설정하고, 여전히 만주족은 축출의 대상이며, ‘중화’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중화’란 무엇인가? ‘중화’라는 어휘의 탄생은 남북조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 『魏書』 「高昌傳」에서 고창, 즉 오늘날의 신강위구르 자치구의 토로번에 대해 “그 땅이 동으로는 중화와 접해 있고 서로는 서역으로 통한다.”라고 하였다(王柯 2007, 289). 역사적으로 ‘중화’는 인문지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만약 중화가 때로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로 전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옹당 1905년 량치차오(梁啓超)가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 중화민족은 처음부터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수 민족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王柯 2007, 290 재인용).

그러나 혁명파의 ‘중화’에 대한 해석의 최종 목적은 ‘중화=중국인=한족’이라는 등식을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한족 민중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민족혁명을 선동하기 위해 지리적

문화적 개념으로 인식해왔던 ‘중화’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혈연적 민족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즉, 한족만이 ‘중화’이며, 만주족은 ‘중화’가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중화민족’용어가 현재와 같이 중국 역내의 소수민족까지 포괄한 의미로 처음 사용된 것은 신해혁명의 와중에 위안스카이가 “외몽골도 역시 중화민족이다”라고 언급한 시기부터였다.

민족개념과 관련해서 오늘날 중국정부와 학계에서는 ‘중화민족’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중화민족’을 새로운 형태의 민족 개념화 되었다. 이른바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주장한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의 형태이다. 상위의 중화민족 개념을 두고 그 하위에는 소수민족 및 한족을 둔 형태이다. 중화민족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와 유사한 가공된 개념의 형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공된 개념으로 탄생된 중화민족은 현재의 정치의 요구와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 개념은 현재 중국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 및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 강역 내에 살아왔던 모든 민족 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중화민족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대 민족도 당연히 중국 민족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러한 중화 민족관에 의해 중국민족의 역사는 지금의 중국 국경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중국의 국경 내 모든 민족역사의 활동범위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공간을 하나로 통합·확장하려는 것이다.

‘중화민족’의 개념은 오직 현대화과정에서 민족국가의 형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정치와 문화의 공동체였다. 중화민족은 하나의 정치개념으로서 정치적 大統一의 합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론기초인 것이다.

중화민족의 개념은 아편전쟁 이후 전개된 사회운동, 정치운동, 그리고 문화운동의 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반외세운동과정에서 서구의 민족주의와 국민국가를 수용한 결과로서 나타난 구조적 산물이다. 중화민족은 신해혁명에 의해 민족국가의 기본이 되는 정치적 기본 틀이 마련되고, 쑨원이 三民主義를 제창하여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이론구조가 형성되면서 민족의 일체감과 국가에 충성심을 기초로 하는 민족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중화민족의 개념은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한 필요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천하관념과 종족의식에서 벗어나 국가관념과 민족의 일체감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Ⅲ. 중화민족론의 논의와 전개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의 성격은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첫째로,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구분된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폐쇄성과 함께 자국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된 개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1920년의 중국의 민족주의는 개방성 보다는 폐쇄성에 가까운 민족주의 성격이다. 두 번째로, 공격성과 저항성 민족주의로 구분된다. 구미와 일본의 제국주의는 공격적인 민족주의 성격에 속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자민족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우월감으로 나타나 타민족·타국가를 차별·경시·멸시·증오·배척하는 대국패권주의나 배외민족주의(排外民族主義) 또는 자민족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협애민족주의(狹隘民族主義)로 나타나기가 쉽다. 푸웨이밍은 중국이 경계해야 할 것으로 협애한 민족주의를 지적했다.

중화민족의 제기는 물론 중국인에게는 복입니다만, 우리의 재생이 일본을 포함하여 서구와 미국 등 우리보다 훨씬 발전해 있는 나라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을까요? (중간생략) 다시 말해 중화민족의 발전이 다른 민족의 고통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는 중국인들의 복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것이 바로 협애한 민족주의입니다(푸웨이밍 2006, 67).

이에 반해, 3세계국가 혹은 약소국가는 외세의 지배와 압박을 벗어나려는 일련의 운동이 저항적 민족주의를 낳고 있다.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쑨원의 삼민주의 가운데 민족주의를 언급하면, 그의 ‘민족주의’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외부’에 대하여 중국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칭조의 영역 내)에 대하여 중국으로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자는 ‘제국주의’와 투쟁하여 중국이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 있으며, 후자는 한족과 만주, 몽고, 위구르, 티벳 등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두 함께 중화민족을 구성하는데 있었다(구성철 2005, 21). 쑨원의 민족주의는 외세를 극복하고 중국의 자존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민에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의 근대민족주의는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이론의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서구의 민족주의와 달리 아편전쟁 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서구열강의 침략에 대응하는 반외세주의 운동을 계기로 형성되었으며, 외세에 대한 배타적 대결과 민족국가의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민족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의 주권, 독립, 자결권을 위한 노력이 바로 반외세에 대한 정치 민족주의라 여길 수 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노력과 역사적 정통성확립을 통한 굳건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서 문화 민족주의 등이 있다.

중국의 근대민족주의는 반외세의 정치민족주의와 전통의 문화민족주의가 결합되어 형성되었고, 이 양자(兩者)의 혼재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대 중국민족주의의 저변에는 오랜 중국의 역사 속에 녹아 있는 중화문화주의가 그 원류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역사의 저변에 깔려 있는 중국의 문화주의에 이미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서양의 민족주의 개념과는 확연히 차별을 이루는 점이다(남정휴 2005, 81-82).

2) 서구민족주의의 등장은 근대민족국가의 성립과 일치한다. 즉 중세의 기독교적 보편주의와 봉건제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민족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실질적 형태를 처음으로 전개한 것은 프랑스혁명이다. 절대군주시대를 지나 17세기의 영국에서, 그리고 1789년 혁명이 프랑스에서 비로소 국가는 왕의 국가가 아니게 되고 이제는 국민의 국가, 즉 민족국가 내지 조국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제는 왕이 아니고 국민(nation)이 국가의 운명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 때부터 서구에서는 「네이션」과 「스테이트」는 같은 것으로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소중(2006b). “중국 민족주의의 역사와 전망.”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p.85.

량치차오(梁啓超)가 처음으로 ‘중화민족’을 사용하기 전에는 중국인들에게는 민족개념이 없었으며,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도 없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華夏’‘漢人’‘唐人’‘炎皇子孫’이라 불렀으며, 외국인들도 중국을 ‘大秦’‘震旦’지나(支那)라 불렀을 뿐 중화민족 혹은 중국이라는 공식명칭도 없었다.

이처럼 ‘화이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중화민족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화이관(華夷觀)’에 관한 설명과 화이관(혹은 이하관)의 변화가 중화민족의 성질을 변화시켰다. 우선, 중화와 四裔(주변) 관계는 중화중심사상을 가져왔다. 이 中華思想은 곧 ‘이하관(夷夏觀)’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이하론이 근대에 들어와서 부정되었다. 서방 식민주의자의 군사적 침략과 문화적 침투가 중화민족 내부의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이하’ 대립의식을 약화시켰다. 전통적인 이하관이 산산조각 퇴색되면서 중화민족 관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중화민족론은 20세기 초부터 등장하여 중화민국시기에 형성되었고 그 뒤 신중국에 계승되었다. 량치차오를 비롯한 입헌파는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의 동북 3성 점령으로 인한 위기에 촉발되어 국민의 자각과 결집에 의한 대중적 구국운동을 전개하면서 만주를 포함하는 5족 화합의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중화민족’ 개념은 원래 중화민국 성립의 주체가 된 한족이 각 이민족을 끌어들이고 마취시키기 위한 정치구호였다.

쑨원은 청조를 타도하자는 배만과 반봉건의 혁명적 민주주의 가치를 내걸고 한족중심의 중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으며, 1920년대 11월의 한 강연에서 쑨원은 “청조가 이미 망했지만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오족 공화를 그만두고 각 민족이 융합되어 하나의 중화민족이 되어야 비로소 민족주의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배경한 2000, 246 재인용).

아래에서는 중화민족의 성격과 변화를 인물 및 시기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째, 량치차오의 중화민족론, 둘째, 쑨원의 중화민족론, 셋째, 국공양당의 중화민족론, 넷째,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민당의 중화민족론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량치차오(梁啓超)의 중화민족론

1901년 『中國史敍論』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제기한 이후 량치차오는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라는 글에서 ‘中華’라는 용어를 설명한다. 여기서 “오대주 중에서 가장 큰 주에 있고, 그 주에서 가장 큰 나라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중화이다.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삼분의 일을 점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중화이다. 4천여 년 동안 역사가 중단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중화이다”라고 적고 있다(梁啓超 1977, 155).

이어 량치차오는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학술사상 지위를 논술하면서 정식으로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1899년 그는 『동적월단』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民族’이라는 용어를 내놓은 이후 1901년 『中國史敍論』에서 ‘中國民族’, 다시 『論中國學術思想變遷之大勢』라는 글에서 ‘中華’용어를 내놓고 나서, 다시 ‘中華民族’ 단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당시 ‘중화민족’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때는 한족을 가리키고, 어떤 때는 중국의 모든 민족을 가리켰다.

1903년에 『정치학 대가 블룬칠리(Bluntschli)의 학설』이라는 글에서 “우리 중국에서 민족을 언급할 때에는 소(小)민족주의 이외에 대(大)민족주의를 더욱 제창하여야 한다. 소민족주의자는 한족을 국내의 다른 민족에 상대하여 보는 것이다. 대민족주의자는 국내의 여러 민족을 합쳐서 다른 국외의 민족들과 상대하여 보는 것이다. 한, 만, 몽, 회, 묘, 장을 합쳐 대민족을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1903년 량치차오가 대민족주의를 정면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혁명과정의 논쟁과정에서 만주족의 배척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중국의 당시의 최고의 적은 만주정부가 아니라 제국주의이며, 당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대민족의 위기와 멸망, 즉 구국이라고 주장하였다(梁啓超 1988b, 29). 그는 또한, 구국이나 종족혁명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연유는 종족혁명은 반드시 복수를 위한 폭력혁명이 뒤따르게 되어 불안정한 공화정을 설립하도록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제국주의의 간섭을 초래하게 되고,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의화단과 마찬가지로 구왕통을 지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梁啓超 1988b, 60).

둘째, 중화민족의 생존을 추구하기 위하여, 중국은 각 민족의 단결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미 만주에서 망했다는 혁명파의 주장에 대하여, 량치차오는 청조로의 전환은 왕조의 전환에 불과하며, 망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민족을 포함한 대민족이야말로 제국주의 침략을 감내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민족주의에 대한 강조는 중화민족의 내부적 단결을 촉구·강화하여 서구 제국주의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 한족중심이나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는 소민족주의에 불과하며, 량치차오가 언급한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중화민족의 민족주의는 대민족주의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족중심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대민족주의를 강조한 것은 중국의 근대민족주의의 형성배경 및 시대적 특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는 서방열강의 침입에 따른 민족의 위기에서 비롯되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립과 자강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려는 민족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1905년, 량치차오는 『역사상 중국민족의 관찰』이라는 글에서, “중화민족은 처음에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다민족이 혼합하여 이루어 졌다.” 이로써 그는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를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 혁명적으로 창조해 냈다. 이것이 바로 중화민족이라는 중국내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한, 만, 몽, 장, 회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고 다원적으로 통합한 단어인 것이다.

그는 또한 변법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³⁾ 속에 국민의 창출을 누구보다도 의식하고 있었던 그는 『變法通議』라는 저서에서 “만주족과 한족”의 벽을 허무는 일부터 변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사카모토 히로코 2006, 69).

량치차오는 1903년 “국내 他族에 대한 한족의 소민족주의 외에 국내 本部(한족지역)와 屬部

3) 사회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승열패’의 법칙에 의하면, 어떤 종족도 최초에는 모두 열등 인종이며, 그 중에서 우량 인종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은 “여러 인종이 합체하여 인종 개량이 발생한 것이며, 합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우열의 차이가 크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변강 소수민족지구)의 여러族을 합하여 국외의 여러 族에 대항하는 大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한 만 몽 회 묘 장을 합하여 하나의 大민족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梁啓超 1988a, 29). 이 “大民族”이 나중에 가면 “중화민족”을 지칭하게 되었고, 중화민족론의 기본구조가 상당한 정도로 정립되었다.

이 같은 단편적이고 정치적 입장의 ‘大民族論’은 1922년에 《중화민족의 연구》라는 강의에서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중화민족론으로 발전한다. 그는 “현재 중국 경내 및 경외의 민족”을 중화족·몽골족·돌궐족·東胡族·氐羌族·蠻越族 등 6족으로 구분하였다. 중화족은 수많은 支族이 합쳐져 형성되었고 그 혈통은 외래의 여러 족과 적지 않게 섞여있다. 중화족을 제외한 나머지 5족은 모두 중국 경내와 경외에 걸쳐 있다(유용태 2003, 194-195).

이중에 동북3성과 조선반도에 거주하는 동호족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오환·선비·숙신·읍루·물갈·말갈·고구려·발해·여진·만주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중 선비·여진 만주족은 수차례 중원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였으니 이는 여타 非중화족에 해당하는 동호족의 특징이다. 동호족은 오늘날 모두 중화민족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중화민족’으로의 동화를 ‘중화 국민화’라고도 표현하여 중화민족이 사실상 중화국민과 다름없음을 인정하였다.

중화민족 외의 주요민족으로 묘족·강족·흉노족·동호족 등 넷을 들고 이들이 중화민족화 또는 중화국민화 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묘족은 黃帝가 蚩尤를 정복한 이래 1720년대-1820년대 개토귀류(改土歸流)⁴⁾에 의해, 강족은 은·주이래 1884년 신장성 설치에 의해, 동호는 민국성립과 청조의 붕괴에 의해 각각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되었다고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재확인하였다(유용태 2005, 195-196).

심리적 일체감을 기준으로 “몽고족과 회족은 동화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과 비교해 보면, 량치차오의 중화민족론은 분명한 역사적 개념으로서, 오늘날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 보여준 중화민족론은 정치적 개념으로서 량치차오의 개념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淸末의 ‘大민족론’에서 동화된 민족이 상향 발전하게 되면 장래에는 몽골족과 회족의 동화도 당연시되어 중화민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유용태 2005, 196).

그렇다면, 량치차오의 대민족주의를 위해서는 한족과 다수 종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몽, 회, 장 등 諸民族을 묶는 중화민족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화민족은 평등주의의 모델로서 직접적인 오족공화론의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쑨원의 오족 공화론의 원류가 되었다. 그런 연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 중국내 혼란을 잠재우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 진다. 즉, 위기는 곧 국가분열이며, 서구열강의 지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한족을 뜻하는 중화민족이 아니라 한족과 소수민족 모두를 묶는 중화민족론을 제시하였다. 결국, 소수민족의 분열은 중국의 분열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중국 명조때 ‘개토귀류’를 시행하여 서남지역의 비한족에 간접통치를 직접통치로 바꾸고, 변강지역의 내지화, 비한족의 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그 이전 왕조 원나라때 처음 실시된 당시 민족집단의 추장을 지방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土司制度(토사제도)라 하였고, 당조와 송조때에는 비한족집단을 중앙왕조의 직접통치하에 두지 않는다는 기미부주제도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王柯,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7.), pp.217-244.

이와 같이 량치차오는 몽, 회, 장족 등 諸민족을 합하여 대 민족, 곧 중화민족을 형성하고 대 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창하였는데, 그 범위에 조선과 베트남을 포함시킨 것은 중화민족론의 속성과 관련해 매우 시사적이다. 이런 논리에 의거하여 그는 1922년 고구려와 발해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하였으니, 이른바 동북공정의 논리는 거기서 이미 싹을 틔운 셈이다(유용태 2005, 219).

민족확대를 강역확대와 동일시켜 보려는 량치차오의 인식은 자신의 입헌파뿐만 아니라 혁명과, 청조정부, 그리고 중화민국 정부 모두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이 중화민국의 ‘군현(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량치차오⁵⁾와 장빙린⁶⁾의 인식 그리고 쑨원의 공간인식은 분명 다르지만 모두 중화민족이 내장하고 있는 팽창주의적 속성을 잘 보여준다. 장빙린은 피압박자인 소수자의 시각에서 서구의 강국에 대한 일관된 비판을 견지하였지만, 주변의 소수민족들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즉, 서구에 대해서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있다. 장빙린은 “<국가론>의 글에서 애국의 염원은 강한 나라 사람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며, 약한 사람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사카모토 히로코 2006, 100 재인용). 하지만 국내(만주족 지배에 대한 저항의 논리도 될 수 있다) 혹은 주변의 소수자에 대해서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고 보여 진다(사카모토 히로코 2006, 102-105).

이처럼, 량치차오의 특징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족과 오족으로 구성된 大민족이 차츰 동화를 거쳐 역사적으로 중화민족론으로 발전한다. 둘째, 중화민족은 사실상 중화국민과 동일한 의미로 쓴다. 셋째, 중화민족론은 정치적 개념이 아닌 역사적 개념으로 본다. 넷째, 중화민족은 동화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2. 쑨원의 중화민족론

쑨원은 입헌파와 달리 혁명만이 중국을 살 길이라 생각했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淸朝를 타도하자는 排滿과 反封建의 혁명적 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漢族중심의 중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즉 서구 열강의 공세적·침략적인 자산계급 민족주의 즉 제국주의에는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면서 통치계급인 淸朝 ‘오랑캐’는 몰아내고 漢族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의 민주국가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는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세우자는 민족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다가 왕조체제 타도라는 혁명과정에서 중국분할과 망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른바 혁명과 분론(革命瓜分論)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 나머지 혁명주도 세력들 혹은 원세개를 위시한 중화민국정부의 대응논리는 혁명이 한족만이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소수민족들의 것이라는 ‘오족공화론’을 들고 나왔다. 즉, 오족공화 주장은 신해혁명이라는 혁명적 상황의 전개와

5) 조선과 베트남은 모두 역대 선조들이 누차 얻고 누차 상실한 조상 전래의 사업(基業)인데 우리 대에 이르러 완전히 남에게 넘어가 버렸다고 아쉬워하였다.

6) 혁명과 영수 장빙린은 “선조 한(漢)의 군현을 경계로 하고 그 민을 화민(華民)으로 한다”고 제시하면서, 몽골·신장·티벳은 그 자신의 거취에 맡기더라도 군현이 설치된 바 있는 “조선과 베트남 두 군(二郡)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함께 중국분할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오족공화론의 내용은 1912년 1월 1일에 발표한 쑨원의 임시대총통 취임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취임선언에서 쑨원은 “한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장족(漢, 滿, 蒙, 回, 藏)의 여러 지역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한, 만, 몽, 회, 장의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민(人民)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민족의 통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오랑캐’를 배척하지 말고 한족과 함께 공화국을 건설하자는 ‘오족공화(五族共和)’의 개방적인 민족주의를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오족공화론을 선언하게 된 배경의 속내는 소수민족의 독립요구를 묵살한 데 대한 대가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티베트와 몽고는 淸末의 혼란을 틈타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그들을 기존 중국지배의 이탈의 동요를 막고, 이들을 소수민족으로 끌어 들이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들이다.

그러면, 당시 티베트와 몽고의 시대상황을 살펴볼 수 없다(배경한 2000, 236-244). 첫째로, 티베트는 唐왕조 시대에는 한때 당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독립된 왕조국가로서, 국운이 쇠약해서 13세기에 원 왕조의 지배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明代에 와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아닌 형식적인 조공관계에 머물러 있다가, 淸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淸末의 혼란한 틈을 타서 영국세력이 티베트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배타적 특권도 인정받고 중·영·티베트·인도조약을 비롯한 몇몇 조약에서 영국은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주권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시대 상황이었다. 1911년 신해혁명은 이러한 티베트인들에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⁷⁾

둘째, 몽고의 독립요구도 티베트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몽골진출과 함께 이루어졌다. 러시아가 몽골에 진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의 의한 것이다. 이러한 진출은 청국 정부와 부딪히게 되었고, 1860년 청국정부와 맺은 ‘중러 북경조약’에서 몽골진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티베트와 몽고의 이탈은 중국 정세의 불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즉, 대민족주의 혹은 오족공화 내지 오족중심의 중화민족 건설 등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원세개의 경우에도 입헌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인 장선(張勳)이 기초하고 원세개 자신이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청황제의 퇴위성명에서 “오족으로 중화민족을 구성한다”고 하여 혁명파와 같은 내용으로 오족공화론을 내세웠다.

1912년 3월 쑨원이 기초한 《中華民國臨時約法》에서는 “중화민국 인민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종족, 계급, 종교의 차별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반포했다. ‘민족은 평등하다’는 것을 처음 강조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같은 해 9월 북경 〈오족 공화축진회 서북협회〉의 연설에서도 쑨원은 다시 한족·만주족·몽고족·회족·장족 등 五族은 ‘평등한 지위’에서 합심하여 국사를 논의, 중국을 세계 제일의 문명대국에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민족평등’의 민족주의를 주장했다. 또 중국의 모든 민족은 융합하여 中華民族이 되어야 한다며, 만주족·몽고족·회족·장족을 漢族과 합쳐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민족융합(民族融合)의 민족주의를 역설하기도 했다

7) 신해혁명은 변방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淸朝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을 가져왔고, 이것을 기회로 티베트의 反淸운동을 기회로 1912년 6월에 독립을 선포했다.

(김소중 2006a, 213-214).

이처럼 중화민족의 인식에 대한 쑨원의 태도는 신해혁명의 전후로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즉, ‘중화민족’ 개념의 성격이 다르게 규정되었다. 첫째로, 신해혁명 이전은 한족 중심으로 구성된 배타적 중화민족 개념이다. 신해혁명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만주족 청조를 반대하는 ‘反滿 투쟁’의 명분용 전략 때문에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론을 구상했다. 즉 신해혁명은 기본적으로 공화체제 수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실제 과정에서는 만주족이라는 이민족 지배에 대한 한족의 저항이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혁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배경한 2000, 245).

둘째로, 신해혁명 이후는 소수민족을 포괄하는 오족공화론으로 바뀌어 량치차오의 大민족론과 유사하였다. 종족적 보복주의에서 벗어나 한, 만, 몽, 회, 장의 통합으로 ‘오족공화’를 주창하고, 나아가 만주, 몽골, 티베트, 신강 등지의 제(諸)민족을 ‘동포’로 부르고 공화국의 주체로서 주권을 지닌 국민으로 포섭시키고 있다.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민족주의 틀을 깨고 민족간의 완전한 평등을 인정하는 넓은 민족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로서 오족공화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족공화’를 제창하여 영토보전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사상은 논리적으로 모순 자체이다. ‘오족공화’의 행위 주체는 ‘오족’이다. 따라서 ‘오족’간의 ‘공화’가 성립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오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화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의 전제는 결코 그 중 하나의 민족이 분발하여 외칠 수 있는가가 아니라 5개 민족이 공통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오족공화 주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족공화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 이유는 오족의 인구는 한족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만주는 일본의 세력범위 내에 있었고, 몽골은 러시아의 세력범위였으며, 티베트는 영국의 세력권에 들어 이들 소수민족지역은 자립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여 한족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세력의 영향 아래에서 가령 그 중 하나의 민족이 민족독립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온다면 ‘오족공화’의 구호는 중국통일·영토보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독립 주장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쑨원은 ‘오족공화’사상을 부정하는 동시에 국가통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한족 중심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세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에 통일적인 중화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한 그의 태도는 “藏, 蒙, 回, 滿은 모두 자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빛나고 위대한 민족주의를 발양하여 장, 몽, 회, 만을 우리 한족에게 동화시켜 최대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한, 만, 몽, 회, 장으로 구성된 오족을 한족으로 동화시키고, 중국에 가입한 어떤 민족이든 반드시 한족으로 동화시킴으로써 하나의 한족국가를 조직한다는 이른바 ‘한족중심론’ 내지 ‘한족 주체론’ 사상이었다.

쑨원은 1919년 <삼민주의>에서 한족이 자존자대(自尊自大)의 명칭을 희생하고 동화의 주체가 되어 한족·만주족·몽골족·회족·장족을 하나로 융해시켜 ‘하나의 중화민족’이 만들어진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5족에 한정하지 않고 “중국의 모든 민족을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융화시켜야 한다”고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즉, 오족공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한족 중심의 민족융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예컨대, 1920년 11월의 한 강연에서 쑨원은 “청조가 이미 망했지만, 제

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오족공화를 그만두고 각 민족이 융화되어 하나의 중화민족이 되어야 비로소 민족주의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外務省調査部 1967). 이 때의 ‘중화민족’은 ‘오족공화론’보다 더욱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이유는 한족을 중심에 놓고 한족 이외의 4개 민족을 한족으로 동화시켜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거대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중화민족’은 기존 민족의 범주를 초월해서 4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非중국의 세계까지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민족상으로 제창된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한족주의’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오족공화론을 부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기인했다. 지금 만주는 일본의 세력 아래에 있고, 몽골은 러시아의 세력범위로 되고, 티벳은 영국의 영향권에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위능력이 없기 때문이니 우리 한족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박장배 1992, 30). 여기서 “중국의 모든 민족”이라 했을 때의 ‘중국’의 범위는 청조의 강역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청조의 무력에 의해 강역이 확장됨으로써 발생한 中國邊疆의 ‘소수민족’문제의 근원은 덮어둔 채 ‘변강민족’문제로 치부해버린 다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자위능력의 결여라는 논리에 의지해 ‘변강민족’문제를 다시 ‘반제민족’문제(‘식민지민족’문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 간략히 정리하면, 신해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신해혁명 이전의 ‘배만’이 중화민국 건립 후 ‘오족공화’로 바뀌고, 다시 오족공화를 부정하고 ‘민족동화’로 바뀌었던 것으로 쑨원의 민족주의 사상은 실제로 부단히 변화하였다고 보여 진다.

쑨원의 삼민주의는 무엇인가? 三民主義는 구국주의이다. 또한, 主義란 무엇인가? 주의는 일종의 사상이고, 신념이고, 힘이다. 무엇을 民族主義라 하는가? 곧 민족의 정의, 민족의 정신이며, 국족주의(國族主義)이다. 일반 인민에게 家族주의와 種族주의가 있을 뿐 國族主義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가족과 종족의 단결력이 아주 강하고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다. 중국인의 단결력은 종족까지에 머물러 있고, 아직 국족에까지는 확대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손문 1986, 41-53). 삼민주의 이론에서 쑨원은 민족주의의 보급을 통해 민중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배양하고, 중국이 서구처럼 자신의 민족국가를 건설하고, 아울러 국민국가 건설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쑨원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모두 민족주의 의식 수립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중화민족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민족국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국공 양당의 중화민족론

1928년 중국을 사실상 재통일한 장제스(蔣介石)은 ‘삼민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보았다. ‘중화민족’과 ‘소수민족’은 宗族과 支族(갈라져 나온 혈족)의 관계로 간주되었다. 당시 집권세력인 국민정부는 한계가 많았다. 헌법에 규정된 상당한 영토들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윈난방면, 티베트방면, 신강방면, 동북방면 등에서 변강위

기의 확대에 따라 당시의 변강, 즉, 東三省·内外蒙古·寧夏·青海·新疆·西康·西藏·雲南·廣西 등지를 볼 때 1937년 당시 외국세력이 점령하거나 통제하는 지역은 중국정부가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영토의 50%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변경과 민족연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주권을 체현하는 지역개념인 ‘변강(邊疆)’이었다.

변강민족 문제의 반제민족 문제는 쑨원을 포함한 국공 양당의 보편적 인식이며, 공유하는 중화민족론의 핵심이다. 1920년대 국민혁명과정에서 국공 양당 모두는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였지만, 점차 지배세력화하면서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다만 민족자결권은 중화민족에게만 부여하고 소수민족에게는 불허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까지 포함하는 민족자결권을 무시하게 되었다. 난징국민정부가 1928년 정부기구의 하나로 몽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몽골·티베트를 직접 지배하려 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유용태 2005, 199).

중국공산당 창당 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미국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 선포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중국 각 민족의 자결권과 평등의식, 반제(反帝)와 독립자주국가 건설을 위한 저항적·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중국공산당은 자산계급 국민당의 反帝보다 더 강력하게 반제 저항적 민족주의 운동을 실시해 나갔다.

1920년대부터 혁명기의 중국공산당은 제민족의 자결권 원칙과 연방제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중일전쟁 기간을 거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에는 자결권이 부정되고 연방제가 아닌 단일제의 공화국을 만들게 된다. 즉, 연방제의 구상에서 자치제로 전환 내지 변화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對日戰爭宣言>에서 “민족혁명전쟁을 실현하여 일제를 중국에서 몰아내고 제국주의의 중국분할을 반대하여 중화민족의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자”고 공산당 밖에서 정립된 중화민족론을 수용하였다. 항일전쟁을 위한 민족적 역량 극대화를 위해 오직 중화민족만이 민족해방전쟁의 단일한 주체라고 파악되어 소수민족 자결권은 방기될 수밖에 없었다(유용태 2005, 200).

이는 공산당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이다. 하지만 마오쩌둥(毛澤東)은 전 민족·인민을 항일전으로 몰아갈 때 이 전쟁은 ‘민족해방’으로 바뀌었다. 즉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에서 ‘민족해방’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으로 전환하게 되어 민족의 항일을 계급투쟁보다 우선시 했다.

계급투쟁에 몰두하던 중국공산당이 민족해방투쟁으로 정책을 전환한 사례로 <8.1선언>(1935)은 중국경내의 각 민족을 형제라 칭하면서 끝머리에 제시된 일련의 구호에서 민족생존과 국가독립 및 영토완성을 위해 싸우자고 외친 다음 “대중화민족의 항일구국대단결 만세!”라고 보여주고 있다.⁸⁾

8) 중국공산당의 항일구국강령으로 알려진 소위 8·1선언은 국내외의 노동자, 농민, 군인, 정치인, 상인, 학계를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항일이면 살고, 항일이 아니면 죽는다」는 전제하에 열렬한 항일 구국을 호소했다. 『亡國奴임을 원치않는 모든 동포들이여!... 조국에 관심을 갖는 모든 교포들이여! 중국 내의 모든 피압박민족(蒙,回,韓,藏,苗,徠,黎,蕃)의 형제들이여!... 각지의 反日義勇軍을 한덩어리로 하는 全中國의 抗日聯軍으로 조직하라』고 호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창순(1981). “1930년대의 중국당전략과 민족주의 및 한족문제.” 『중국연구』. 3권. pp.77-80.

중국공산당은 장제스 정권이 주장하는 ‘한족의 대민족주의’를 비판하였다. ‘지방민족주의’와 ‘대민족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는 중국공산당은 1920년대 이래 ‘연방제’ 국가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1930년대 중반이후 공산당측도 ‘중화민족’개념을 중국 전체 주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사실상 ‘소수민족’은 ‘중화민족’의 하위개념이 된 것이다(박장배 2005a, 169). 또한 ‘민족 자결’ 보다는 ‘민족평등’이 강조되었다.

이리하여 “중화민족의 각족(各族) 인민은 모두 외래 민족의 압박에 반대하여 반항수단으로 이 압박을 해제하여야 한다”, “중화민족과 제국주의의 모순은 각종 모순 중 가장 주요한 모순이다.”라고 파악하는 反帝적 중화민족론 속에서 소수민족의 자결권은 단숨에 묻혀버렸다.

중국의 항일전쟁이 개시된 이후 ‘反帝 민족문제 혹은 植民地 민족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핵심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국민당 장제스는 『중국의 운명(中國運命)』을 통해 중화민족론을 펼쳤다.

중화민족이 아시아대륙에 건국해서부터 이미 5천년의 역사를 거쳤다.…我중화민족은 자연성장의 과정 중에서 外侮를 방어하고 그 생존을 보장기 위하여 群力を 집중하여 국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화민족과 支族의 끊임없는 융화와 인구의 번식에 의하여 강대하게 되고 국가의 영역도 이에 따라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중화민족은 일찍이 자연성장의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혹은 대외적으로 무력으로 신장한 일은 없었다. 만약 외래의 무력이 우리나라의 防線을 돌파하여 민족의 생존에 필요한 지역을 점거당한 데에는 중화민족은 부득이 받는 치욕과 생존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恢復을 盟誓하고 부흥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민족성장의 역사로부터 말하면 중화민족은 다수의 宗族의 融和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중화민족에 융화되는 종족은 歷代마다 증가하여 갔다. 그러나 융화의 동력은 무력이 아니고 문화이었고 융화의 방법은 정복이 아니고 同化이었다. 3천년전 황하, 장강, 흑룡강, 珠江의 諸유역에는 다수의 종족이 분포되어 있었다.…만주족의 동화도 金代와 같다. 그러기 때문에 신해혁명이후 만족과 한족은 일체로 融和하여 이를 구별할 하등의 痕迹(흔적)도 발견하기가 곤란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화민족의 공고한 의식, 強勤한 힘, 유구한 문화는 그들로 하여금 外侮(外辱)를 받지 않게 하고 타족이 침범치 못하게 하였다. 외모를 받지 않기 위하여 異族의 침입에는 奮起하여 중국의 산하를 恢復하였고, 他族이 침범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의 알력에 의한 痛苦를 解除하는 동시에 유구한 문화로써 四隣(사린)의 宗族을 융화하여 이것을 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화민족은 이족에 대하여 그 무력에 저항하고 또 무력을 베풀지 않고서 그 문화를 흡수하여 자기의 문화를 充實시켰다. 이것은 我민족의 생존과 발전과정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특질과 특징이다(蔣介石 1946, 1-4).

이는 이미 1920년대 초 량치차오와 쑨원의 중화민족론을 대체로 이어받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의미들은 중화민족 개념의 절대화를 낳게 되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무시 내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1939년 2월 쿤밍에서 발행된 『益世報·邊疆副刊』을 중심으로 중화민족론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은 우공학회 창립자의 하나인 꾸지에강(顧頌剛)의 “중화민족은 하나다(中華民族是一個)”라는 글로 인해 촉발되었다. 그는 “철도는 명맥이니…실로 중국의 생사 존망의 문제다.”(박장배 2005b, 144 재인용)라고 하였는바, 이는 종족문제를 교통문제로 환원하였다.

여기에는 바이서우이(白壽彝)·페이샤오통(費孝通)·지엔바이잔(翦伯贊)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자가 참여하였는데, 크게 양자의 입장으로 나뉘는데, 첫째 그룹은 “모든 중국인은 중화민족이며 중화민족 안에서는 절대로 또 다른 어떤 민족도 갈라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둘째 그룹은 이와 달리 중화민족 안에서 몇 개의 민족을 갈라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토론의 쟁점은 중화민족 안의 또 다른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는가의 여부일 뿐 ‘중화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토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유용태 2005, 203 재인용). 이는 논쟁의 무대가 항일전쟁의 현실조건에 규정받은 결과일 것이다.

당시의 한 변강연구자는 “항진 전야부터 ‘민족부흥’의 구호가 매우 떠들썩하게 일어났고 ‘중화민족은 단결해야 한다,’ ‘중화민족은 하나다’”등의 선전도 학술연구만큼이나 중요한 때였다. 또 다른 변강연구자도 “중국의 이번 항진은 분명히 전체 중화민족의 해방전쟁이지 國族내 어느 한 민족단위의 해방전쟁이 아니며,” 해방된 후에도 “통일된 하나의 중화민국” 안에서의 각 민족의 자치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반제민족론에 치우친 나머지 대민족주의적 견해가 소민족주의적 견해를 압도하는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당시의 급박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중화민국시기의 집권세력이었던 국민당은 이른바 ‘한족중심주의’로 체제의 통합을 도모하였는데 반해, 중화인민공화국시기의 집권세력인 공산당은 ‘사회주의’라는 공통의 기반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민당의 중화민족론

중국공산당은 민족해방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도 중화민족의 위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949년에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은 쑨원의 민족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제 민족의 평등과 자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민족의 평등한 권리에 의거한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50년부터 제 민족의 조사에 착수하여 그간 여러 차례의 민족조사를 거쳐 개혁과 개방 시기에 들어간 1979년 운남성에 거주하는 지누어족(基諾族)을 민족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한족을 배제한 55개 소수민족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민족 평등정책은 55개의 소수민족이 자치와 언어, 의석수 등을 확보하게 되어 민족간의 불신을 없애고 화합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앞선 시기와 마찬가지로 ‘반제 중화민족론’, ‘하나의 중화민족론’, 大민족주의를 계승하여 ‘민족구역자치’가 1952년부터 실시되었고, 이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규정되었다.

1954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에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라고 명시하여 소수 민족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서문에서 제국주의·패권주의·식민주의에 반대하며, 세계 각국 인민과 단결을 강화하여 피압박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김소중 2006a, 215-216).

1957년 저우언라이(周恩來)는 大漢族主義⁹⁾와 地方民族主義를 동시에 반대하여 한족과 소수민족의 小민족주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즉, 하나의 전체인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주의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무원에는 몽장(蒙藏)위원회를 계승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안에도 민족위원회가 설치되어 소수민족문제를 관장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가 정비되었다.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사회주의 민족이론에 따라 민족관계를 계급관계 문제로 융해시켜 민족문제를 비켜 나갔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중국’을 다민족 통일국가로, 민족을 ‘중화민족’으로 규정하여 다수민족인 한족 소비니즘과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8년에 나온 페이샤오통(費孝痛)의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의 구상이다. 이처럼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격국(구조)’개념을 제시하면서 중국의 정관계(政官界)는 물론 학계에서도 ‘중화민족’을 국민의 애국심을 동원하고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해 왔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중화민족’은 “중국 고급 민족의 총칭으로 많은 민족이 결합하여 통일국가가 되는 오랜 역사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집합체”인 것이다(陳連開, 1994, 1-8).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론은 기존의 모호한 중화민족 개념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론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제민족의 평등, 민족자치정책, 각민족 상층리더와의 통일전선 구축이라는 민족정책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이후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에 대한 한층 완결적인 ‘국민화’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조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1920년대 쑨원(孫文)에 의해서 주창된 ‘중화민족’론을 이론적으로 보강하여 발표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가 말하는 ‘중화민족’개념은 한족이나 티베트, 몽골족 등 민족학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였다는데 있다. 중화민족은 민족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노력의 결과로 페이샤오통의 ‘중화민족의 다원일체 구조’는 영토와 민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족이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소수민족을 완전히 동화시키거나 아니면 역으로 소수민족 자체의 역사와 영토 및 민족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 ‘중국’이라는 명칭은 계속 미해결의 현안 또는 민족 갈등의 불씨로 남아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한족 스스로의 발목을 잡히고 말 것이다.

타이완의 국민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1949년 이후 대만으로 건너와서 영토수복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민국시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중화민족론’을 당연히 계승 내지 발전시키는 것이 타이완의 국민당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1987년 타이완 독립을 정강으로 내건

9) 대한족주의, 한족 종족주의, 한족중심주의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남, “천하에서 민족국가: 중국의 근대민족주의의 형성 및 현재적 의의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109호 (2006, 봄) pp.78-80.

민진당의 집권으로 ‘하나의 중화민족론’은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민진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장대로 ‘하나의 중화민족론’을 인정하게 되면 타이완 독립의 논리는 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이완 독립을 모토로 삼고 있는 민진당은 ‘하나의 중화민족론’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지배적이다.

타이완 학자 루이이푸(芮逸夫)는 중화민족은 중화국가의 國族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자격에 대한 법률규정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화민족’이란 사실상 ‘중화민국 국민’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즉, 정치적으로 일원적으로 파악되지만, 종족적으로는 다원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중화민족은 하나의 인위적 부호”라고 주장한다(芮逸夫 1972). 따라서 그는 학술적 관점에서는 여러 민족으로 갈라낼 수 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중화민족은 나눌 수 없는 전체라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페이샤오통은 1989년 “다원일체격국론”을 주장하여 중화민족과 국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라는 종래의 견해를 견지했다. 또한 그 구성분자인 소수민족의 문화적 다원성은 인정하여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라고 묶어버림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민족이론으로 포장하였다(費孝通 1989, 1-36).

‘중화민족’ 개념의 정립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압도적 다수인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수민족 거주지를 ‘고유한 영토’범위에 포함시켜 중국의 영토 범위로 규정하고,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규정하여 민족 분리주의를 분쇄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처럼 중화민족 개념을 정치적 개념에 끼워 맞춤식 형태로서 ‘가공된 억지 가설’의 논리를 펴고 있다.¹⁰⁾

요컨대, ‘중화민족’이란 과거에 한족을 지칭하였고, 오늘날에는 “중국내 각 민족”을 지칭하는 것일 뿐 ‘하나의 민족’을 가리키는 민족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이다.¹¹⁾ 이러한 개념은 몽골족과 같은 과정(跨境)민족(일국의 경내외에 걸쳐있는 민족)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이는 다원성을 강조한 견해로서, “전체 중화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완전통일을 공동으로 쟁취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 된다”는 일체성론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현대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명칭으로는 ‘중국’을 사용하고 있고, 민족의 개념으로는 중국¹²⁾ 과 중화(지리적 문화적이지 않고 민족적인 경우)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10) 중국 내부에 있어 ‘중국’과 ‘중화민족’ 개념 문제는 신해혁명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 정권이 타도 또는 독립 인정의 대상이었던 소수민족을 상황이 변하자 편의적으로 그들을 붙잡아 끌어들이고 그들이 살던 땅을 ‘중국’영토로 규정하여 점령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11) 베네딕트 앤더슨이 주장하는 ‘상상의 공동체’와 유사한 새로운 가공된 형태의 개념이다.

12) ‘중국’의 명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詩經》이다, 국가의 명칭이 아니라 國中, 즉, 수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孟子, 史記, 漢書, 三國志 등 여러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뜻을 6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수도, 둘째, 천자가 통치하는 지역, 셋째, 중원지역, 넷째, 국내, 다섯째는 화하민족 주거지역, 여섯째는 화하 민족이 건립한 국가를 나타낸다. 춘추전국시대를 지나 통일왕조 진나라와 한나라시대 영토확장과 세력팽창을 추구했던 중원의 화하민족은 정복한 모든 민족을 흡수하면서 그들과 스스로를 모두 중화민족이라고 불렀다. 이민족에 중원을 내주고 화하민족이나 중화민족의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한족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위진남북조 시대이후에는 중국이라는 이름이 한족만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원을 차지한 다른 민족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민족과 관계없이 중원에 나라를 세운 역대의 모든 왕조들도 자신들을 중국이라고 하였다.

있다. 중국민족은 곧 중화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현재 중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56개 민족과 과거 이들 민족의 후예는 모두 ‘중화민족’이라고 한다.

흔히 중국에는 조선족이라 불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다. 중국인들의 개념에는 조선족도 중국국민이고 중화민족의 하나이다. 조선족과 한국 사람은 같은 혈통을 가진 한 민족이다. 중국인들의 중화사상과 중화민족의 개념으로 본다면 조선족은 물론 한국 사람도 중화민족이라는 논리가 된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정리해 보면, 중화민족이란 과거에 한족을 지칭하였고, 한족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오늘날에는 중화민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내 각 민족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래 중화민족의 개념 형성은 유가문화 속에서 결코 도출해 낼 수가 없다. 유가문화 속에는 중국의 전체사회를 기초로 하는 ‘민족’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해혁명을 거치면서 근대국가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사회내부 혼란으로 인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가치관과 문화가 결여되었다. 이러한 유가문화로서 사회를 지탱해 나가지 못한다고 판단한 중국 지식인들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단결을 최우선적으로 걱정하게 되었다. 민족의 일체감과 국가의 충성심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규범의 창출을 바랬다.

이처럼 국가위기에서 탄생한 ‘중화민족론’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그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에도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중화민족론은 새로운 궁지에 처하게 되었다. 탈냉전의 시작과 함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족 결속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감을 초래하게 하였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정책을 재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덧붙여 한족과 소수민족을 망라한 국가 정체성 과 민족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관 · 민족관의 재정립을 바라게 되었다. 이것이 중화민족론의 재탄생을 가져왔다.

과거 瓜分(분열)의 아픔과 천하 중심의 세계(천하관)에 대한 향수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대(大)통일의 역사논리를 낳았다. 이러한 배외 민족주의와 중화주의의 만남은 새로운 형태의 ‘중화민족주의’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중화민족주의의 모색은 공산당의 위기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사회주의의 이념의 퇴색을 대신하여 공산당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화민족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이론적 모색을 찾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개념 형태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모습과 민족개념 형태인 ‘중화민족’을 가져왔다. 여기서 중화민족이란 역사적 민족 개념인데, 이는 오늘날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주변 민족이 한족과 함께 문화·역사적으로 서로 융합해 중화 다민족국가의 대통일 역사과정에 동참한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민족인 것이다(조병한 2008, 43).

하나의 통일된 중국과 중화민족의 형성이 역사적 근거를 지닌 것임을 밝히기 위해 중국학계가 심혈을 들여 노력한 결과이다.

참 고 문 헌

- 구성철(2005). “중국의 민족주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중(2006a). “중국 민족주의 상황과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pp.213-214.
- _____(2006b). “중국 민족주의 역사와 전망.” 『동양정치사상사』. 제5권. 1호, p.85.
- 김창순(1981). “1930년대의 중공당전략과 민족주의 및 한족문제.” 『중국연구』. 제3권. pp.77-80.
- 푸웨이밍(2006). 김태성 역. 『문명들의 대화』. 서울: 휴머니스트.
- 남정휴(2005). “중국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통해서 본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동북아논총』. 제37권. pp.81-82.
- 박장배(1992). “중화민족 개념의 형성에 대한 소고-청말민국전기(1899-1928)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2005a).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지역구조-지역 재구성 및 ‘서부대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연구총서 12.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p.169.
- _____(2005b). “현대 중국학계의 고구려사 연구사업의 등장배경.” 『역사와 현실』. 제55집. p.144.
- 박병석(2004). “중국의 국가, 국민 및 민족명칭 고찰.” 『사회이론』. 제26호, p.32.
- 사카모토 히로코(2006). 양일모 · 조경란 역. 『인종 · 신체 · 젠더로 본 중국의 근대』. 서울: 지식의 풍경.
- 손문(1986). “三民主義.” 『世界思想大全集』. 서울: 양우당.
- 梁啓超(1977). 韓武熙 역. “中國 學術思想의 變遷.” 『世界思想全集』. 제40권, 서울: 三省出版社.
- 王柯(2007). 『민족과 국가: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유용태(2003). “현대중국의 변강 · 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호, pp.194-195.
- _____(2005). “중화민족론과 동북지정학: 동북공정의 논리근거.” 『東洋史學研究』. 제93집. pp.195-196.
- 윤휘탁(2006). 『新中華主義』. 서울: 푸른역사.
- 이유진(2007). “다원일체로서의 중국과 고구려의 만남.” 『中國語文學論集』. 44호, p.381.
- 이정남(2006). “천하에서 민족국가: 중국의 근대민족주의의 형성 및 현재적 의의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109호, pp.78-80.
- 이진영(2004). “개혁 개방과 중화주의 재대두: 모순과 분열 속의 진로 모색.” 『현대중국연구』. 제6집. 2호, pp.178-183.
- 蔣介石(1946). 宋志英 역. 『중국의 운명』. 서울: 신세대사.
- 조병환(2008). “동북아의 근대와 역사해석의 문제: 민족주의 사학 비판.” 동북아역사재단 편.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43.
- 顧頡剛(1939). “中華民族是一個.” 『(昆明)益世報 · 邊疆副刊』. 9期.

- 費孝通(1989)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費孝通 主編(1991). 『中華民族研究新探索』.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_____(2005).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 『費孝通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梁啓超(1988a). 『飲冰室文集』. 제3冊. 13권. 法仁文化社.
- _____(1988b). 『飲冰室文集』. 제4冊. 19권. 法仁文化社.
- 芮逸夫(1972). 『中國民族及其文化論稿』. 臺北: 藝文印書館.
- 尹建中(1987). “試擬我國民族文化變遷融合的模型.” 『人文學報』. 제 12期.
- 外務省調査部 編(1967). 『孫文全集』. 제3冊. 東京: 原書房.
- 陳連開(1994). “中華民族的含意初探.” 『中華民族研究初探』. 北京: 知識出版社.

Abstract

A character and development process of Zhonghua minzu

Cheon-Seok Yi*

What do mean Zhonghua minzu(中華民族)? With the advent of the Western imperialism, The world-view of chinese was shaken. it is not solely China's world anymore. China tries to seek a national identity, and she needs the rebirth of nationalism.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the socialist system, China, composed of their various minority race, cause severe conflicts. In response, she is making efforts to restore identity of the national and the ethnic for the reestablishment of nation views and ethnic views. Like this, the grounds that Zhonghua-minzu replaces Han(Chinese) is as follows. Firstly,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unity is a pending issues. Secondly, it feel the need to prevent from the probability of the things to come was. To be problem for us was an historical conflict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named Dongbei-Gongcheng (東北工程). The ancient historical problem in this area have relevance to many race problem. Many minority races in china are possessed of the conflict with Han(Chinese). china tries to combine them, and is pursuing the identity called 'one nation'. This paper needs to understand relations between Zhonghua-minzu with neo-Sinocentrism, and needs to grasp its nature and concept in predicting a domestic and foreign change. Accordingly, by comprehending the formed cause of Zhonghua-minzu and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it will be useful for us to understand nature of Zhonghua-minzu.

■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29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